

##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을까? 🦖

공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또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태초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단세포생물이 생기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생물이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의 공룡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생겨나서 백악기 말에 멸종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신생대 4기에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변하여 생겨났다고 합니다. 백악기 말이 지금으로부터 6500만년 전이고 신생대 4기가 200만년 전이므로 공룡과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국 그랜드캐년 하바수파이 계곡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이 벽화는 1800년대 말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오클랜드 고고학 박물관의 후버일행이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사람과 여러 동물, 공룡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룡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초식공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다리가 매우 작아서 뒷다리와 꼬리를 사용해서 서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공룡의 벽화가 발견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로디지아에서는 브론토사우루스를 그려 놓았습니다.

또 벽화 외에도 공룡 또는 그와 비슷한 동물이 살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사람만이 벽화를 그릴 수 있고, 공룡을 그린 사람은 공룡을 보고 그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고고학자인 Waldemar Julsrud는 멕시코 Acambaro의 변두리 지역인 티 Toro Mountain 아래에 묻혀있는 점토로 된 작은 입상들을 발굴했습니다.

결국 33,000개 이상의 흙으로 구워진 조각상(ceramic figurines)들이 고대 Chupicuaro 문명(BC 800 ~AD 200)이 발달했던 지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AD 900 년에 아일랜드에서 관측된 Stegosaurus.

아일랜드의 한 작가는 꼬리 위에 뒤쪽을 향해 나있는 날카로운 돌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짐승을 만났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는 말의 머리 정도로 작은 크기였다.

그리고 강한 발톱이 있는 두터운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습은 공룡 Kentrosaurus나 Stegosaurus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 짐승은 꼬리에 날카로운 돌기, 두터운 다리, 강한 발톱, 긴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무덤에서는 약 2000년 된 공룡이 그려진 도자기와 벽화, 의복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을 묘사하는 글이 성경에 씌어있다는 것을 보아도 사람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 21절에 큰물고기가 창조되었다고 되어있고 (아마 수룡-플레시오사우르스를 말하는 것), 욥기 40장에는 큰 하마 즉 히포가 아닌 베헤모스라는 영어로 표현된 거대한 괴물이 풀을 먹고 있다고 해서 거대한 초식공룡을 설명하고 있고, 욥기 41장에서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불을 뿜는 괴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사야 27장 1절에도 탄닌 (히브리어로 큰 물고기)이 날랜 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기에 창조되어 함께 산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궁금해?궁금해!」, 한국창조과학회 제공